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자신감, 비판적사고 성향, 간호 전문직관의 관계

우주현¹, 송정희^{1*}

¹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elf-confid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Woo Ju-Hyun¹, Song Jung-Hee^{1*}

¹Professor, Dept. of Nursing, Ansa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자신감, 비판적사고 성향, 간호 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자료는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수집되었다.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 4학년 학생 122명이며,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자신감 32.31점, 비판적사고 성향 101.34점, 간호 전문직관 3.78점이었다. 의사소통 자신감은 비판적사고 성향($r=.568, p<.001$), 간호 전문직관($r=.282,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사고 성향은 의사소통 자신감($r=.568, p<.001$), 간호 전문직관($r=.361, p<.001$)과 간호전문직관도 의사소통 자신감($r=.282, p<.05$) 비판적사고 성향($r=.361,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 간호대학생, 의사소통 자신감, 비판적사고 성향, 간호 전문직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qualities of nursing students who need to improve their communication self-confidence by identifying their communication self-confid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The study's data was collected from August 2019 to September 2019. Informed consent was received from 122 students who were in their senior of nursing colleg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WIN 20.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core for communication self-confidence was 32.31, the score for 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as 101.34, and the score for nursing professionalism was 3.78. Communication confidenc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critical thinking tendency($r=.568, p<.001$) and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r=.282, p<.001$). The critical thinking tendency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ommunication confidence($r=.568, p<.001$) and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r=.361, p<.001$).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was also found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ommunication confidence($r=.282, p<.05$) and critical thinking propensity($r=.361, p<.001$).

Key Words : Communication Self-confid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Professionalism

*Corresponding Author : Song Jung-Hee(sjh1994@ansan.ac.kr)

Received August 03, 2020

Revised August 11, 2020

Accepted August 21, 2020

Published August 31,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및 영적 영역의 건강을 회복, 유지하고 증진하며 고통의 경감 등을 목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인이다[1]. 전문 의료인으로서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대상자 및 타 전문인과 끊임없이 의사소통하며, 대상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도자, 옹호자, 연구자, 변화 촉진자, 의사결정자, 조정자, 협력자, 행정가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 이를 위해 간호학 교육과정에서는 비판적사고 능력, 통합적사고 능력, 의사결정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간호학 전공 이론 및 실습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의사소통은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 즉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언어적, 비언어적인 방법을 통해 사실이나 정보, 감정, 태도, 생각 등 일정한 정보를 전달하고 반응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간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며 의사소통 능력은 의사소통의 사회적 속성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3]. 간호는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 전문적인 돌봄이라 할 수 있다[4].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은 조직 구성원의 협동, 구성원 사이의 충돌과 갈등의 해결, 그리고 간호업무성과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5]. 따라서 간호사에게 있어 의사소통 능력은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비판적사고는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고 좀 더 옹호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생각하는 동안에 자신의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예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6]. 간호사는 다양한 스트레스 환경에서 간호를 제공하는 동안 다양하고 복잡한 중요 결정들을 자주 내리게 된다[7].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에게 비판적사고가 중요하다. 간호학에서 비판적사고는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간호대학생은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비판적인 사고

를 포함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간호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에게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 전문직관이 필요하다. 간호 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 관념 및 인상의 총합을 말하며[8], 긍정적인 전문직관의 형성은 간호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효율적인 간호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며 간호사 스스로의 만족도와 직업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간호사의 위치를 확립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영향을 준다[9]. 따라서 전문직 간호사로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간호 전문직관의 형성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간호 전문직관은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졸업 후 3~5년 사이 가장 효과적으로 형성된다[9].

이에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이 다양한 임상간호 현장에서 간호대상자에게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사고 그리고 간호 전문직관의 형성은 필요하다 할 수 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 각각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신규간호사로서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 남지 않은 간호학과의 4학년 학생에게 있어 간호 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사고 그리고 간호 전문직관의 형성 정도를 파악해 보는 것은 이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비판적사고 능력, 간호 전문직관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 신규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자신감, 비판적사고 성향, 그리고 간호 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자신감, 비판적사고 성향, 간호 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의사소통 자신감, 비판적사고 성향 및 간호 전문직관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의사소통 자신감, 비판적사고 성향 및 간호 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자신감, 비판적사고 성향 및 간호 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자신감, 비판적 사고 성향 및 간호 전문직관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K도에 소재한 1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으로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관해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 122명이다. 자료 수집은 2019년 8월부터 2019년 9월에 진행되었다. 대상자 수는 Cohen[10]의 분류를 참조하여 G*power 3.1.9.2를 이용해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 $\alpha = .05$, 검정력 power=.95, 효과크기 $r=0.3$ 을 투입했을 때 산출된 표본 수는 총 111명이다. 산출된 표본수는 흔히 최소 필요 표본 수이므로 설문지 누락 및 불완전한 설문지 등을 고려하여 배부한 130부 중 총 122부(93.8%)를 회수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문항, 의사소통 자신감 5문항, 비판적사고 성향 27문항, 간호 전문직관 29문항 총 6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1 의사소통 자신감

의사소통 자신감은 Kim[11]이 개발한 것으로 표준화된 SBAR도구(상황, 배경, 평가, 제안) 내용에 따라 임상상황을 의료진에게 보고하는 자신감 정도를 말하며 5개 문항으로 각 항목은 0-10점의 숫자평점척도로 측정된 점수로 왼쪽 끝 0점은 '전혀 자신 없음'에서 오른쪽 끝 10점은 '매우 자신 있음'으로 최저 0점에서

최고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2.3.2 비판적사고 성향

비판적사고 성향은 Yoon[12]이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개발한 지적 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의 7개 영역 총 27문항의 5점 Likert척도로 각각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최저 27점에서 최고 1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사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였다.

2.3.3 간호 전문직관

간호 전문직관은 Yeun, Kwon, & Ahn[13]이 개발한 도구(Korean Nursing Professional Value, K-NPV)를 사용하였다. 간호 전문직관은 전문직 자아개념 9문항, 사회적 인식 8문항, 간호의 전문성 5문항, 간호실무역할 4문항, 간호의 독자성 3문항의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 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측정 변인들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5.27±4.74세 이었으며 대상자 중 남성은 16명(13.1%)이었고,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8명(47.5%)이었다. 대상자의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93±0.60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평균 학점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3.5이상 4.0 미만으로 응답한 학생이 56명(45.9%)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22

Characteristics	Category	N(%)	M(SD)
Age	21 ≤, <24	53(43.4)	25.27(4.74)
	24 ≤	69(56.6)	
Gender	Male	16(13.1)	
	Female	106(86.9)	
Religion	Yes	58(47.5)	
	No	64(52.5)	
Nursing satisfaction	Highly dissatisfaction	0(0.0)	3.93(0.60)
	Dissatisfaction	3(2.5)	
	Neutral	17(13.9)	
	Satisfaction	87(71.3)	
	Highly Satisfaction	15(12.3)	
Grade point average	<3.0	12(9.8)	
	3.0 ≤, <3.5	35(28.7)	
	3.5 ≤, <4.0	56(45.9)	
	4.0 ≤, <4.5	18(14.8)	
	No answer	1(0.8)	

3.2 대상자의 의사소통 자신감, 비판적사고 성향 및 간호 전문직관

대상자의 의사소통 자신감, 비판적사고 성향 및 간호 전문직관은 Table 2와 같다. 의사소통 자신감은 50점 만점 중 32.31±7.66점이었고 1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6.46±1.53이었다. 비판적사고 성향은 135점 만점 중 101.34±10.73점이었고 5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3.75±0.40점이었다. 간호 전문직관은 5점 만점 중 3.78±0.42점으로 나타났다. 비판적사고 성향의 하부영역을 분석한 결과 지적 공정성이 5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4.10±0.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

전문직관의 하부영역을 분석한 결과 간호의 전문성이 4.03±0.4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2. The degree of communication self-confid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22

Variable	Mean	SD	Range	
Communication self-confidence	32.31	7.66	12-5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01.34	10.73	69-128	
Nursing professionalism	Intellectual eagerness/curiosity	3.69	0.61	2.41-4.90
	Predence	3.64	0.62	
	Self-confidence	3.74	0.57	
	Systematicity	3.46	0.60	
	Intellectual/fairness	4.10	0.43	
	Healthy skepticism	3.62	0.68	
	Objectivity	4.07	0.48	
	Total	3.75	0.40	
Nursing professionalism	3.78	0.42	2.41-4.90	
Communication self-confidence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3.91	0.48	
	Social awareness	3.51	0.60	
	Professionalism of nursing	4.03	0.45	
	The roles of nursing service	3.99	0.52	
	Originality of nursing	3.41	0.77	

3.3 대상자의 의사소통 자신감, 비판적사고 성향, 간호 전문직관의 관계

대상자의 의사소통 자신감, 비판적사고 성향, 간호 전문직관의 관계는 Table 3과 같다. 의사소통 자신감은 비판적사고 성향(r=.568, p<.001), 간호 전문직관(r=.282, p<.05)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비판사고 성향은 의사소통 자신감(r=.568, p<.001), 간호 전문직관(r=.361, p<.001)과 간호 전문직관은 의사소통

자신감($r=.282, p<.05$) 비판적사고 성향($r=.361,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of communication self-confid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professionalism, nursing satisfaction and grade point average

N=122

Variable	Communication self-confid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professionalism
Communication self-confidence	1	.568** (.000)	.282' (.00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	.361** (.000)

* $p<.05$, ** $p<.001$

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자신감, 비판적사고 성향, 간호 전문직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자신감, 비판적사고 성향, 간호 전문직관의 차이 분석결과는 Table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의사소통 자신감은 성별($t=2.17, p=.03$)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비판적사고 성향은 연령($t=-3.17, p=.002$)과 성별($t=2.76, p=.007$)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고 간호 전문직관은 종교유무($t=2.77, p=.006$)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elf-confid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22

Characteristics	Category	Communication self-confid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professionalism		
		M(SD)	t/F	ρ	M(SD)	t/F	ρ	M(SD)	t/F	ρ
Age	21≤, <24	31.24(6.83)	-1.48	.14	98.22(11.28)	-3.17	.002'	3.77(0.44)	-0.34	.74
	24≤	33.28(8.28)			104.16(9.43)			3.79(0.41)		
Gender	Male	36.13(9.60)	2.17	.03	108.06(8.87)	2.76	.007	3.90(0.50)	1.24	.22
	Female	31.74(7.21)			100.330(10.65)			3.76(0.41)		
Religion	Yes	33.13(8.54)	1.04	.30	102.62(10.48)	1.16	.25	3.90(0.37)	2.77	.006'
	No	31.68(6.91)			100.36(10.89)			3.69(0.44)		
Grade point average	<3.0	32.08(7.17)	0.84	.47	97.50(8.98)	0.93	.43	3.79(0.41)	1.34	.26
	3.0≤, <3.5	31.26(8.32)			101.37(12.85)			3.87(0.43)		
	3.5≤, <4.0	32.18(7.84)			101.46(10.05)			3.70(0.36)		
	4.0≤, <4.5	34.78(6.18)			104.16(9.05)			3.82(0.59)		

* $p<.05$, ** $p<.001$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자신감, 비판적 사고 성향, 간호 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임상 간호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 자신감, 비판적 사고 성향, 간호 전문직관을 향상시키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자신감은 점수범위 1~50점, 50점 만점에서 32.31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와 같은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같은 도구로 측정한 Kim[11]의 연구에서 22.21, Seo & Jang[14]의 연구 24.09 보다 높았으며, Kim & Yu[15]의 29.85보다 조금 높았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 자신감이 높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에서는 대상자 성별이 대부분 여학생으로 13%가 남학생인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남자대학생이 19%인 Park & Kim[16]의 연구에서는 6.39로 본 연구에서 1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6.46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드물어 성별의 차이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는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의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의사소통 자신감에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추후 의사소통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Kim[11]은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소통 기술이 익숙해지면서 의사소통 자신감이 상승하

였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사후평균점수가 40점으로 상승하였음을 보고하였다. Seo & Jang[14], Kim & Yu[15]도 프로그램 사후평균점수가 상승한 이유가 의사소통의 반복연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자신감은 임상 상황에서 자기표현을 통해 성공적으로 보고를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상 실습환경에서 환자와 실습 학생의 안전을 고려한 직접적 보고 실습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더라도 단순한 정보전달에 대한 의미가 크므로 임상 상황에 대해서 동료나 간호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익숙하거나 쉽지 않은 과정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또한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양한 임상 상황에 노출시켜서 반복적인 훈련과 지속적인 연습이 가능하게 된다면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17 - 19] 임상 상황에서 의료인,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르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술적 조사연구였지만, 추후 다양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된다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자신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비판적사고 성향은 5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3.75로 3.61로 보고한 Lee & Chung[20]과 Kim, Jang, Park, & Song[21]의 3.60, Park & Ko[22]의 3.55, Lee & Kim[23]의 3.58 보다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의 연구대상자로 2, 3학년이 일부 포함되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는 4학년 예비 졸업대상자로서 임상실습을 통해 비판적사고를 경험하여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만족과 경험 정도가 높을수록 비판적사고 성향이 높으므로[24], 임상 실습경험의 정도에 따라 비판적사고 성향이 다를 수 있다.

간호 전문직관은 3.78로 나타났는데, Lee & Kim[23]의 3.73, Lee & Ji[25]의 3.70과 비슷했다. 반면 Choi[26]의 연구에서는 3.97로 본 연구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1~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Kim & Joung[27]의 연구에서도 3.82로 보고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연구대상이 학년 전체였으며, 1, 2학년이 3, 4학년보다 높아 학년이 올라갈수록 간호 전문직관점수가 낮아지는 경

향이 있었다. 이는 간호 전문직관이 간호학 전문교육을 받는 동안 형성되며 교육을 받는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 발달하게 된다는[28] 것과 상반된 내용으로 학년에 따른 간호 전문직관의 영향요인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 전문직관은 환자안전 간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29], 긍정적인 간호 전문직관을 가진 간호사일수록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간호업무 수행능력 성과와 조직몰입도가 높아진다고 볼 때[30], 간호 전문직관의 정립은 임상상황 활동을 앞둔 예비간호사에게 중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자신감, 비판적사고 성향, 간호 전문직관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의사소통 자신감의 차이가 있었고, 연령과 성별에 따라 비판적사고 성향의 차이가 있었으며, 종교 유무에는 간호 전문직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eong, Kim & Seong[24]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비판적사고 성향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것과 유사한 결과라 하겠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자신감과 비판적사고 성향, 간호 전문직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 자신감은 비판적사고 성향($r=.568, p<.001$)과 간호 전문직관($r=.282, p<.001$)에 통계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의사소통 자신감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사고 성향과 간호 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ee & Chung[20]의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비판적사고 성향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았으며, 같은 도구는 아니지만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를 파악한 Jeong, Kim & Seong[24]의 연구와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Jeong & Joo[31]의 연구와도 같았다. 비판적사고 성향은 비판적사고를 하는 데 필요한 정서적 성향을 의미하며 진실 추구성, 개방성, 탐구성, 객관성, 체계성, 자기 신뢰성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32]. 따라서 비판적사고 성향이 높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3]. 의사소통에 자신감을 갖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며, 상대방과 서로 통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므로 비판적사고 성향인 타인의 입장을 공평하게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개방성 있게

표현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한편 Ji[34]의 연구에서는 졸업 학년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 변인으로 간호 전문직관을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간호 전문직관에 따라 의사소통 자신감이 높게 나타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하겠다. 간호 전문직관의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사고 성향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와 동일하게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Kang, Kang & Kim[35]의 연구에서도 간호 전문직관과 비판적사고 성향에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직에 대한 관점과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간호 전문직관은 신규간호사가 되는 졸업 학년 재학생의 비판적사고 성향에 따라 긍정적인 직업관을 갖는데 관련이 있다.

간호대학생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임상상황에서 간호의료인으로서의 올바른 인식을 갖고 비판적사고를 하며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간호를 이루어 가도록 교육하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자신감, 비판적 사고 성향, 간호 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의사소통 자신감과 비판적 사고 성향, 간호 전문직관은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의사소통 자신감은 환자 상황보고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질문한 것으로 다양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교육 과정에 통합시뮬레이션 기반 팀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간호 전문직관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1] J. T. Shon, E. H. Jang, N. S. Ha, H. J. Lee, J. H. Yang, E. K. Ryu, K. H. Lee, S. H. Kim et

al. (2010). *Fundamentals of Nursing*. Seoul: Hyunmoonsa.

[2] S. H. Yang, J. S. Won, H. J. Back, M. Y. Jeon, H. S. Cho, M. W. Kim, J. H. Kang, J. I. Lee, Y. J. Kim, J. H. Park et al. (2014). *Fundamentals of Nursing*. Seoul: Hyunmoonsa.

[3] H. S. Kang, N. Y. Lim, S. Y. Oh, W. O. Kim, J. I. Kim, S. H. Lee, K. H. Seo, Y. M. Kang, H. Y. Kang, S. H. Kim et al. (2014). *Fundamentals of Nursing*. Seoul: Soomoonsa.

[4] S. H. Kim, M. A. Lee. (2014). Effects of Emotional Labor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Turnover Intention i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 Nurs Adm*, 20(3), 323-341. DOI : 10.11111/jkana.2014.20.3.332

[5] S. I. Im, J. Park, H. S. Kim. (2012). The Effects of Nurse's Communication and Self-Leadership on Nursing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Occup Health Nurs*, 21(3), 274-282. DOI : 10.5807/kjohn.2012.21.3.274

[6] R. Paul (1988). What, then, is critical thinking? The Eighth annual and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itical Thinking and Educational Reform. Rohnert Park, CA: *The Center for Critical Thinking and Moral Critique*, Sonoma State University.

[7] J. J. Kim, Y. H. Kim, Y. S. Kim, E. Y. Park, J. W. Park, J. H. Park, M. H. Sung, S. H. Yang, H. M. Chung, Y. H. Hong(2014). *Nursing Process and Critical Thinking*. 5th Ed. Seoul: Soomoonsa.

[8] K. O. Lee, H. J. Chae. (2016).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llege adjustmen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0), 355-365. DOI : 10.14400/JDC.2016.14.10.355

[9] G. S. Jang, M. H. Lee, I. S. Kim, S. H. Kim, M. J. Shin, N. S. Ha, B. H. Kong, K. H. Chung. (2015). *Ethics & Profession of Nursing*. Seoul:

- Hyunmoonsa.
- [10] J. Cohen.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11] E. J. Kim. (2018). The Effect of Simulation-based SBAR Training Program on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and Clinical Judg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University of Korea, Gwangju.
- [12] J. Yoon. (2004).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13] E, J. Yeun, Y, M. Kwon, O, H. Ahn.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00.
DOI : 10.4040/jkan.2005.35.6.1091
- [14] I, J. Seo, S, Y. Jang. (2020). Effects on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Clarity, communication Confidence, and Self-efficacy Following SBAR Progra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 977-992.
DOI : 10.22251/jlcci.2020.20.1.977
- [15] Y. M. Kim, J. Y. Yu. (2019). Influences of simulation-based education of postpartum hemorrhage care on nursing college students' critical thinking tendency communication confidence, and problem solving proces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19(6), 399-409.
DOI : 10.21742/AJMAHS.2019.06.38
- [16] S. J. Park, S. J. Kim. (2019). The Effects of Team-based Simulation Education on Problem Solving Process, Communication Ability and Communication 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4(2), 165-172. DOI : 10.15715/kjhcom.2019.14.2.165
- [17] S. Marshall, J. Harrison, B. Falnagan. (2009). The teaching of a structured tool improves the clarity and content of interprofessional clinical communication, *Quality & Safety in Health Care*, 18(2), 137-140.
DOI : 10.1136/qshc.2007.025247
- [18] M. Thomas, E. Bertram, D. Johnson. (2009). The SBAR communication technique: teaching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communication skills, *Nurse Educator*, 34(4), 176-180
DOI : 10.1097/NNE.0b013e3181aaba54
- [19] W. Wang, Z. Liang, A. Balzeck, B. Greene. (2015). Improving Chinese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by utilizing video-stimulated recall and role-play case scenarios to introduce them to the SBAR technique, *Nurse Education Today*, 35(7), 881-887. DOI : 10.1016/j.nedt.2015.02.010
- [20] S, H. Lee, S, E. Chung. (2014). Influencing Factor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steem on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4(12), 340-349.
DOI : 10.5392/JKCA.2014.14.12.340
- [21] I, S. Kim, Y, G. Jang, S. H. Park, S. H. Song. (201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339-347.
- [22] C. S. Park, Y. J. Ko. (2019).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Nursing Process 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20(10), 68-75.
DOI : 10.5762/KAIS.2019.20.10.68
- [23] O. S. Lee, E. J. Kim. (2018).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nsciousness of Bioethics in Nursing

-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4), 251-258.
DOI : 10.14400/JDC.2018.16.4.251
- [24] G. S. Jeong, K. A. Kim, J. A. Seong. (2013). The Effect of Learning Styl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ommunication Skill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3), 413-422. DOI : 10.5977/jkasne.2013.19.3.413
- [25] E. K. Lee, E. J. Ji. (2016).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Attitude toward Nurse-Physician Collaboration,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3(2), 126-135.
DOI : 10.7739/jkafn.2016.23.2.126
- [26] H, J. Choi. (2017).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6), 68-77. DOI : 0.5762/KAIS.2017.18.6.68
- [27] Y. K. Kim, M. Y. Joung. (2019).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mpus Environment on the Perception of Ethical Sensitivity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1), 115-124.
DOI : 10.5977/jkasne.2019.25.1.115
- [28] S. S. Kim, J. J. Kim, W. H. Lee, I. K. Oh, S. M. Mun, Y. J. Kim. (2004).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Student Nurses and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0(3), 317-323.
- [29] M. A. Lee, S. J. Gang, H. S. Hyun. (2019). Relationship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patient safety nursing activities in general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5(4), 317-328.
DOI : 10.11111/jkana.2019.25.4.317
- [30] S. S. Han, M. H. Kim, E. K. Yun. (2008).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1), 73-79.
- [31] Y. J. Jeong, S. Y. Joo. (2020). Analysis on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Skills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the Creative Leader, *Competency of College Freshmen*. 26(1), 93-111.
- [32] S. Y. Joo. (2017). The effects of Problem-Based Learning program with graphic organizers on the critical & creative thinking abilities and the personality of the gifte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chunhyang University of Korea, Asan.
- [33] J. Y. Lee, S. Y. Park, M. J. Lee, Y. H. Jung. (2013).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Emotional Regulation, Perceived Stres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606 - 616.
DOI : 10.5977/jkasne.2013.19.4.606
- [34] E. J. Ji. (2014).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Empathic Ability on Communication Ability in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3), 1685-1697.
- [35] H. S. Kang, Y. M. Kang, Y. M. Kim.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Ego resili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Senior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4), 219-229. DOI : 10.14257/AJMAHS.2016.04.14.

송정희(Jung-Hee Song)

[정회원]



- 2005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8년 2월~2011년 2월 : 김천과학대학 간호학과 교수
- 2011년 3월~2015년 2월 : 전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5년 3월~현재: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 E-Mail : sjh199@ansan.ac.kr

우주현(Ju-Hyun Woo)

[정회원]



- 2006년 2월 :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 2013년 2월 :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박사
- 1998년 3월~2011년 8월 : 계요병원 책임간호사
- 2011년 10월~2016년 2월: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6년 3월~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학, 의사소통, 교육
- E-Mail : woojuhyun@ansan.ac.kr